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스위스? 느낌 아니까~

12일 경기 파주 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실시된 대표팀 소집 훈련에서 김신욱, 손흥민 등 대표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1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스위스, 19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러시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15일 평가전 앞두고 축구 대표팀 소집

7년전 설욕 다짐…19일 러시아와 일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조 1위로 본선행을 확정한 스위스(15일·밤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 러시아(19일·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연달아 평가전을 치른다.

홍명보호는 출범 이래 유럽팀(크로아티아)과 한 차례 맞붙어 1-2로 졌다. 태극전사들은 이번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유럽 강호와 붙어 승리하는 귀중한 경험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12일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을 시작한 선수들은 특히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3차전에서 한국에 0-2 패배를 안긴 스위스에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날 소집된 선수 중에 독일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는 아무도 없다. 홍 감독이 당시 코치를 맡았을 뿐이다.

대표팀의 '맏형' 곽태휘(알 샤밥)는 "올해 마지막 평가전인데다 강팀과 치른다는 큰 의미가 있는 평가전이다. 본선에 가면 어차피 강팀들을 만나게 돼 있다. 조직력에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기성용(선덜랜드)은 "객관적으로 체력적,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나은 팀들"이라고 상대를 평가하면서 "최대한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근호(상주 상무)도 "그냥 이겨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자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이어 "본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유럽팀을 상대로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유럽 빅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역사를 쓴 손흥민(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에 좋은 스위스 선수들이 많다. 하지만 이번에 홈에서 경기가 열리는 만큼 이길 기회라고 본다"며 승리를 향한 바람을 숨기지 않았다.

대표팀은 1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스위스와 경기를 치르고 나서 16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한다. 러시아와의 평가전은 19일 두바이 알 막툼 경기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홍명보 감독

월드컵축구 '운명의 일주일'

본선진출 티켓 11장 주인 20일 최종 확정

유럽 PO 포르투갈-스웨덴 전 하이라이트

'브라질행 마지막 티켓을 잡아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할 32개 나라가 20일까지 모두 확정된다. 현재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나라는 21개국.

남은 본선 티켓 11장은 유럽 플레이오프에 4장과 아프리카 지역에 배당된 5장,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걸린 2장 등이다. 이 가운데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곳은 역시 유럽이다. 유럽 지역 예선에서 각 조 2위에 오른 8개 나라가 15일(이하 현지시간)과 19일에 홈 앤드 어웨이로 맞붙어 본선에 나갈 4개 나라를 정한다.

FIFA(국제 축구연맹) 랭킹 14위 포르투갈과 25위 스웨덴의 맞대결이 하이라이트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20위)와 프랑스(21위), 그리스(15위)와 루마니아(29위), 아이슬란드(46위)와 크로아티아(18위)가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아프리카에 걸린 5장의 본선 티켓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현재 10개국이 두 나라씩 묶여 최종 예선을 진행 중이다. 여기서 이긴 5개 나라가 본선에 오른다.

남은 두 장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분배된다. 남미 지역 예선 5위 우루과이(6위)가 아시아 지역 5위 요르단(70위)과 홈 앤드 어웨이 경기를 벌이고, 북중미에서 4위를 한 멕시코(24위)는 오세아니아 지역 1위 뉴질랜드(79위)를 상대한다. 대륙간 플레이오프 1, 2차전은 13일과 20일에 각각 열린다.

세계 랭킹 6위 우루과이가 본선에 진출하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시드는 10월 FIFA 랭킹에 따라 스페인(1위), 독일(2위), 아르헨티나(3위), 콜롬비아(4위), 벨기에(5위), 우루과이(6위), 스위스(7위)와 개최국 브라질이 받게 된다. 하지만 요르단이 이기면 우루과이 대신 네덜란드(8위)가 시드를 받는다.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 32개 나라가 모두 확정되고 난 후 본선 조 추첨은 12월 6일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 주 코스타도 사우이페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674만명 다녀갔다

올 프로야구 입장객 역대 3번째…KIA 47만명

2013 프로야구 그라운드에 674만3940명이 다녀갔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올 시즌 프로야구의 총 입장객수가 674만394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페넌트레이스 관객 644만1855명(576경기)과 올스타전 관객 1만2000명(1경기) 및 포스트시즌 29만85명(16경기)의 관객을 모두 합한 숫자다. 2012년(753만3408명)과 2011년(715만4441명)에 이은 역대 3번째 관중이다.

지난 9월21일 잠실·대전·목동에서 열린 3경기에 4만2738명이 찾으면서 프로야구는 2011년 이후 3년 연속 600만 관중(602만82명)을 넘어섰다.

이상 저온과 기록적인 폭염, 홀수 구단 체제로 변화된 경기 일정 등으로 관중 몰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지만 시즌 마지막 날까지 4강 싸움이 진행되면서 3년 연속 600만 관중 달성에 성공했다.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LG의 신바람도 한 몫을 했다. LG는 신바람 행진 속에 올 시즌 최다 관중(128만9297명)을 유치했다.

700만 관중 달성의 핵으로 주목 받았던 롯데는 시즌 초반부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시즌 사직구장에 136만8995명이 찾았지만 올 시즌에는 43.7%의 대폭적인 감소세와 함께 77만681명의 관중이 다녀가는데 그쳤다.

시즌 초반 매진 행진을 펼쳤던 KIA도 성적 추락과 함께 지난 시즌(50만2016명)에 비해 6.3% 감소한 47만526명의 관중을 기록했다.

신생팀 NC는 LG·두산(115만2615명)·SK(91만2042명)에 이어 52만8699명을 불러모으며 선전했다.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은 7년 연속 매진에 성공했다. 2007년 사직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을 시작으로 올 시즌 포항에서 열린 올스타전까지 만원 관중이 들어찼다.

'가을 잔치'도 평균 관중 2만 명 시대를 지켰다. 특히 한국시리즈의 연속 매진 기록은 38경기로 늘었다. 2007년 10월25일 잠실에서 열린 SK와 두산의 한국시리즈 3차전을 시작으로 올 시즌 한국시리즈 7차전까지 만원사례가 이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구대상' 박찬호

류현진 '특별공로상'·박병호 '타자상'

한국인 최초의 빅리거 박찬호가 일구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은퇴 프로야구인 모임인 일구회(회장 이재환)가 12일 박찬호를 포함 올 시즌 10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메이저리그 124승의 주인공인 박찬호는 은퇴 후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 받아 일구대상 수상자가 됐다.

2년 연속 프로야구 MVP를 들어올린 넥센 박병호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최고 타자상을 받는다. 46세이브를 수확한 넥센 마무리 손승락은 최고 투수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무명의 설움을 딛고 두산의 극적인 가을 잔치를 만든 투수 유희관은 신인상 주인공이 됐다. 세 차례의 팔꿈치 수술을 딛고 LG 마운드를 지킨 투수 이동현은 의지노력상, 시즌 도중 병마와 싸우면서도 팀 방어율 1위를 이끈 LG 차명석 투수코치는 지도자상을 차지했다.

프런트 상은 11년 만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LG 트윈스에게 돌아갔다. 동아시아대회 준우승을 지휘한 경성대 윤영환 감독과 20년 경력의 최수원 KBO 심판위원은 각각 아마지도자상과 심판상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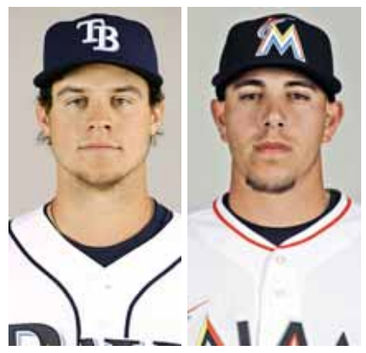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 14승을 수확한 류현진(LA 다저스)은 한국 야구의 위상을 드높이며 특별공로상 수상장로 이름을 올렸다. 은퇴 선수의 권리와 권익 보호에 앞장선 이상훈 고양원더드 코치도 특별공로상을 받는다.

한편 '2013 CJ 마구마구 일구상'시상식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이유 홀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B 신인상 호세 페르난데스·윌 마이어스

류현진, 10표로 4위



윌 마이어스 (탬파베이 레이스) 호세 페르난데스 (마이애미 말린스)

미국 프로야구 마이애미 말린스의 투수 호세 페르난데스와 탬파베이 레이스의 외야수 윌 마이어스가 올해 신인왕을 차지했다.

페르난데스는 12일 미국 야구기자협회(BBWAA)가 선정하는 '올해의 신인' 부문에서 30장의 1위표 중 26장(142점)을 받아 내셔널 리그(NL) 신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페르난데스는 올 시즌 선발로 172.2이닝을 던지는 동안 12승 6패, 평균자책점 2.19(리그 2위)를 기록하며 야시엘 푸이그(LA다저스·95점), 셸비 밀러(세인트루이스·12점)와 함께 NL 신인왕 후보 상위 3인에 들었다. 류현진은 10점을 받아 4위에 올랐다.

페르난데스는 평균자책점을 비롯해 탈삼진(187개), 피안타율(0.182), 출루허용률(0.98)에서 NL 신인 중 1위를 차지했다. 내셔널리그에서 쿠바 태생의 선수가 올해의 신인으로 선정된 것은 페르난데스가 처음이다.

페르난데스는 신인왕에 오른 데 이어 사이영상 후보 상위 3인에 포함되는 기염을 토했다.

아메리칸 리그(AL) 신인왕인 마이어스는 30장의 1위 표 중 23장을 획득, 함께 후보에 오른 호세 이글레시아스(디트로이트)와 크리스 아처(탬파베이)를 따돌렸다.

캔자스시티 로열스에서 뛰다가 지난겨울 탬파베이로 트레이드된 마이어스는 6월 18일에서야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8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3, 출루율 0.354, 장타율 0.478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타점(53점), 2루타(23개),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지표인 OPS(0.831) 부문에서는 AL 신인 중 1위를 달렸다. /연합뉴스